

實在解釋과 哲學의 立場

「現代의 思惟와 人間理念」의 續稿(五)

金基錫

現實에로. 現實에로. 이리하여 모두들 運動에서보는 生成의論理는 늘 자기를 具體的 思惟라고 主張하면서 觀念論을 무론 哲學自體부터도 집어치우다 싶이 대어든다. 哲學이 본대 現實을 鮮明해야한다는 見解, 思惟가 워낙 具體的 思惟가 되어야 한다는 主張에 대하여 우리들은 疑念을 뚝을 까닭이 없다.

그러나 이 生成의 論理가 오늘의 辨證法같은것에 잇어서 果然 그 本來의 途程에 오르는가 안는가를 근심한다.

哲學은 在來의 形而上學 또는 認識論에서 解放되어 實際 및 그 世界를 그 現實構造에 잇어서 理解하고 說明해야한다. 사람들은

現代의 代表哲學이 한가지로 이 實際論的 方向에 돌린다고 한다. 이것은 결단코 哲學의 形而上學에의 復歸가 아니오. 現實의 學으로서의 哲學의 한 出發을 가져온다고 보여진다. 이제 오늘의 現實主義가 어떤 한 개의 立場에 잇어서 實在의 世界現實의 世界를 觀念論的 解釋을 넘어서서 비로소 그 具體性에 잇어서 解明했다고 하라. 우리들은 그□ 現實主義를 한 개 高次의 立場으로 承認해야하고, 또 우리들 자신이 새로운 立場에 나아가서지 안혀서는 안된다. 그러나 觀念論이 아모리 抽象的 思惟이면서도 그것이 人間이가지는 한 개 論理인 모양으로 現實主義가 어떠한 具體的 思惟라고해도 이것마저

人間의 世界에 대한 한개 思惟態度인것을-잇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思惟와 구별되는 現實存在로서의 人間을 發見한다. 哲學이 자기를 一切의 學의 根源으로 主張하는것과 함께 人間은 자기를 哲學의 主體로서 措定시킨다. 사람들은 오늘의 辨證法을 가르쳐 한개 具體的 眞理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辨證法的 論理란것을 建設하고 거기에서 實在 및 그 世界를 把握, 省察 해드리 가는 것은 암만해도 이 哲學의 主體로서의 人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앞에서 哲學의 課題가 現實의 世界에 대한

解明 에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이 現實의 世界란 現實存在로서의 人間을 그속에 가진 것이 되어야한다. 現實存在로서의 人間이 그 속에서 살고 또 죽는 世界가 되어야 한다. 아모리 存在를 품고 아모리 生成을 보이고 아모리 運動을 지니기로서니, 그것이 人間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속에 人間을 가진 것이 아닌 한에서 그것은 한개 事實의 世界는 될지 언정 아직 現實의 世界는 되지 못한다.

實在의 世界는 그 속에 人間을 가지면서 비로소 자기를 現實의 世界, 客觀의 世界로 限定하기에 이른다. 實在의 世界가 그 속에 人間을 가진다고 볼 것이 아니고 人間이 實在의 世界속에서 처음에 자기를

存在 의 秩序로 그 다음에 자기를 生의 秩序로 또 그 다음에 자기를 理性的 秩序로 實踐의 秩序로 限定해 나아온다고 보아서 어떨까. 이러해도 우리들은 人間에 있어서 理性이나 實踐만을 외울 것이 아니라 生을 存在를 時間을 無를 읽어야 한다.

主體로서의 人間에 대하여 전연 헤아릴 길이 없는 客體의 世界가 마조 선다고 한다. 이때 人間은 客體의 世界로부터 아모런 交涉도 가질길 이 없게 된다. 人間의 理性이 對象을 認識하는 것은 對象을 認識하는것이 아니고 對象에 있어서의 自己를 認識하는것이 된다. 人間의 對象의 思惟의 成立根據가 진실로 여기에서 構成된다.

哲學은 現實을 思惟한다고 한다. 그런데 人間만이 이른바 現實을 思惟

省察 해 나아간다. 여기에서 哲學의 主體로서의 人間이 措定된다. 現實은 본대 그 속에 人間을 가지고 또 人間의 存在에 있어서 그 『그본얼굴』을 開展시켜 나아간다. 여기에서 哲學의 客體로서의 人間이 發見된다.

이러대로 人間은 哲學의 主體이면서 客體, 그 客體이면서 主體의 意味를 가진다. 哲學은 본대 人間이가지는 人間의 學이되고 또 人間을 생각하는 人間에 대한 學이 되어야한다. 이 主體的 客體的, 客體的 主體的 世界로서의 人間이란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人間을 歷史的 社會的 存在라고한다. 이 歷史이니 社會이니는 그 勝義에 있어서 人間의 歷史, 人間의 社會의 意味를 가진다.

歷史 觀, 社會관이 人間을 規定할것이 아니고 도저히 人間學이 歷史와 社會를 說明하게된다.

人間은 理性을 가진다. 그러나 人間은 단순히 『생각하는 存在』는 아니다. 人間은 行動 또는 實踐을 가진다. 그러나 人間은 단순히 『움직이는 存在』도 아니다. 人間은 理性的=行動的, 行動的=理性的存在가 되어야한다. 人間은 그 자신 한개生物이 되기는 한다. 또 生物은 물러가 한개物質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고 해야 人間은 『生物的인것』, 『物質的인것』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人間은 『歷史的인것』 을 가진다. 人間에게 있어서 『物質的인것』 은 『生物的인것』 에로, 『生物的인것』 은 『歷史的인것』 에로

自己 를 止揚시켜야 한다. 人間은 다시 나아가 『理念的인것』 을 가진다. 『歷史的인것』 은 『理念的인것』 에로 자기를 거듭 止揚시켜야 한다.

哲學은 이 「人間의 學」 으로서 자기를 實在의世界, 現實의 世界로에 解放 하지만혀서는 안 된다. 過去의 哲學이 形而上學, 認識論같은것에 있어서 한갓 超越的 實在, 理性的 限界를 論議하고 잇엇음을 想起하라. 이제 現實의 地盤우에서 새로 構成될 哲學은 形而上學에 대하여 現實의 學, 認識論에 대하여 體驗學的, 價値論에 대하여 人間理念學을 建設해야한다.